

禪佛教의 淨土思想

鄭 性 本*

1. 서언 - 정토란 무엇인가?

대개 淨土라면 아미타불의 極樂淨土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대승경전에는 「유마경」의 佛國淨土, 「법화경」의 靈山淨土, 그밖에 彌勒淨土, 娑婆淨土, 唯心淨土 등 많은 淨土와 불국토를 주장하고 있다.¹⁾ 중국 淨影寺 慧遠(523~592)은 「大

* 동국대 선학과 교수

- 1 「아미타경」(『大正藏』 12-346c)에 아미타불의 정토는 西方, 십만 억의 佛土를 지닌 곳에 있고, 極樂이라고 함. 「阿閼佛國經」 卷上 「發意受慧品」(『大正藏』 11-751c)에 아축불의 정토는 東方. 여기서부터 千佛刹을 지난 곳에 있고, 정토의 이름을 阿比羅提(妙喜)라고 함. 「藥師如來本願經」(『大正藏』 14-401b)에 약사여래의 정토는 東方. 여기서 十恒河沙 등의 佛土밖에 있고, 淨琉璃世界 라고 함. 「大般涅槃經」 제24권 「光明遍照高貴德王品」(『大正藏』 12-508c)에는 석가의 정토는 西方, 이 사바세계를 지나서 42 恒河沙 등의 국토를 건너 간 곳에 있으며, 無勝世界라고 이름한다. 「文殊師利佛土嚴淨經」 卷下 (『大正藏』 11-899b)에는 문수사리는 當來 南方에서 성불하고, 그의 세계를 離塵垢心이라고 이름 함. 「법화경」 「授記品」에 (『大正藏』 9-20c~21c)에 마하가섭이 성불할 때 국토를 光德. 수보리가 성불할 때 국토를 寶生. 목건련이 성불할 때 국토를 意樂이라고 함. 또 「비유품」에는 사리불이 성불할 때 국토를 離垢라고 한다고 설함. 「悲華經」 제4권 「諸菩薩本授記品」(『大正藏』 3-188c~192b)에 다음과 같이 설함. 금강지혜광명공덕보살이 성불할 때 淨土는 東方에 있고, 不眇라고 이름하며, 虛空印보살이 성불할 때 정토는 東南方에 있고, 蓮華라고 이름하며, 師子香보살이 성불할 때 정토는 上方에 있고 青香

乘義章』 제19권에 정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정토라고 하는 것은 經典 가운데서는 佛刹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혹은 佛戒라고도 칭하고, 혹은 佛國·佛土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또 淨刹·淨界·淨國·淨土라고 할 수 있다.

刹이란 다른 아닌 천축 사람들의 말로서, 중국에서는 번역한 말이 없는 데, 대개 處處의 別名이다. 부처(佛)에 約定하여 장소를 代辯한 것이기 때문에 佛刹이라고 말한다.

佛世界란 세간에서 말하는 世間·國土·境界로서 중생이 사는 곳을 器世間이라고 말한다.

界는 바로 界別이다. 부처님이 머무는 곳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界別이라고 말한다. 또한 佛은 變化에 따라서 住處가 각각 다르기에 界別이라고도 한다. 부처에 約定하여 界를 代辯하기 때문에 佛世界라고 한다. 佛國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두루 포섭하는 곳, 그것을 이름하여 國라고 하고, 佛에 約定하여 나라(國)를 代辯하기 때문에 佛國이라고 한다.

佛土라고 함은 몸(身)이 편안한 곳이기에 그것을 土라고 하고, 佛에 約定하여 土를 代辯하여 佛土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그 나라(國)를 論한다면 王이 領導하는 것이고(王領者有), 王이 영도하지 않는 곳은 없다. 土는 그렇지 않고, 몸(身)이 있는 곳에 모두 있다. 刹과 界는 그 뜻이 서로 通한다. 그리고 雜穢가 없기 때문에 모두 淨이라고 말한다.²⁾

정토란 경전에서 말하는 佛刹이나 佛國·佛土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선불교에서 말하는 淨土란 무엇을 의미하는

光明無垢라고 하며, 보현보살이 성불할 때 정토는 北方에 있고 그 정토의 이름을 知水善淨功德이라고 한다고 함.

이와 같이 여러 경전에는 十方에 재불보살의 住處로서 정토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大正藏』 44-834a

말이며, 그 정토의 세계를 선에서는 어떻게 체득해야 할 것인가? 본론에서는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정토사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대승불교경전과 정토

정토경전 가운데 「淨土」라는 말이 康僧鎧의 번역으로 전해지고 있는 「佛說無量壽經」 卷上에 보인다. 즉 법장비구가 世自在王佛에게 '원하옵건데 세존이시여!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재불 여래의 淨土行(諸佛如來淨土之行)을 敷演해 주소서!' 라고 懇請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³⁾

여기서 말하는 정토는 阿彌陀佛의 극락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여기는 諸佛이 淨佛國土를 건립 할 때의 실천 「行」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이 淨土의 行은 「土를 깨끗이 맑히는 行」의 의미이다.

이에 대해 극락을 정토라고 말할 경우는 「맑고 깨끗한 佛土」의 의미이기에, 같은 淨土라도 兩者의 의미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법장보살이 菩提心을 일으켜 諸佛의 정토를 건립하는

3 康僧鎧에 대해서는 「高僧傳」 제1권(「大正藏」 50-325a)에 曹魏 嘉平年 249~254년 末에 洛陽에 왔다고 전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무량수경」은 그의 번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藤田宏達, 「原始淨土思想の研究」(日本:岩波書店, 1973, pp.63~69) 「무량수경」은 劉宋의 시대 佛陀跋陀羅와 寶雲이 421년에 共譯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羅什이 중국에 와서 「반야경」 「유마경」 「법화경」을 번역한 이후에 번역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藤田宏達 「淨土の起源」(「佛敎」第11號, 法藏館, 1990년 4월.) 平川彰 「淨土思想の成立」(講座 大乘佛敎, 제5권 「淨土思想」, 日本:春秋社, 1985.)참조. 「諸佛妙土清淨之行」(「大正藏」 12-267b~c)이란 말도 보임.

것을 배워 자기도 스스로 淨佛國土의 실천행을 하려고 결의하고 世自在王佛을 향하여 ‘諸佛이 어떠한 淨佛國土의 行을 닦으셨는지? 그것을 가리켜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 漢譯 『無量壽經』에 보이는 「諸佛如來淨土之行」에 대해 現存 티베트本이나, 漢譯異本の 「무량수경」 등에는 이 「淨土」에 해당하는 적절한 원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康僧鎧의 번역으로 전하는 「無量壽經」에 보이는 淨土라는 말은 원전의 경전에는 이에 상응하는 原語가 없기 때문에 번역자가 삽입한 말로 보고 있다.

「淨土三部經」에는 「淨土」라는 말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인도불교에서는 정토사상에 대하여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중국의 淨土敎는 강승개의 번역으로 전하는 「無量壽經」의 이 「諸佛如來淨土之行」이라는 「淨土」라는 말을 근거로 하여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

1) 諸佛의 淨土

중국불교 역사상 경전의 번역에서 「淨土」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구마라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마라집이 번역한 『維摩經』 「佛國品」에 長者 寶積이 ‘오직 원하옵건대 諸菩薩의 淨土의 行을 설해 주옵소서’ 라고 간청함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보적이여 마땅히 알라. 直心이 바로 보살의 淨土로서,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거짓을 하지 않는 중생이 태어난다. 深心이 바로 보살의 淨土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공덕을 갖춘 중생이 태어난

4 注記 3) 平川彰의 논문 참조.

다. 菩提心이 바로 보살의 淨土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대승의 중생이 태어난다.⁵⁾

『維摩經』에서는 이 일단에 이어서 보시, 지계, 인욕 등 17種의 보살의 淨土를 밝히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보적아, 만약 보살이 淨土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 마음이 깨끗함에 따라 즉 佛土도 깨끗하다.⁶⁾

支謙이 번역한 『維摩經』에는 「佛國清淨之行」, 혹은 「佛國清淨佛國淨」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정토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뒤에 부분도 「보살의 마음(뜻)이 청정하기 때문에 불국이 청정한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다.⁷⁾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경』의 정토에 대한 일절은曇鸞의 「淨土論註」 卷上 (『大正藏經』40-829a)을 비롯하여 돈황본 「육조단경」 16단, 「돈오요문」 그리고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 등에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정토사상의 핵심이 되고 있다.

또한 구마라집이 번역한 「法華經」 6권, 「壽量品」에도 淨土라는 말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5 寶積 當知,直心是菩薩淨土,菩薩成佛時,不謬衆生,來生其國.深心是菩薩淨土,菩薩成佛時,具足功德衆生,來生其國,菩提心是菩薩淨土. 菩薩成佛時,大乘衆生,來生其國.

(『大正藏』 14-538c)

6 是故 寶積 若菩薩,欲得淨土,當淨其心.隨其心淨,則佛土淨 (『大正藏』 14-538a~c)

7 支謙譯 「維摩經」 卷上

如是童子,菩薩欲使佛國清淨,當以淨意作如應行.所以者何.菩薩以意淨故,得佛國淨

(『大正藏』 14-520b)

항상 영축산 및 다른 곳에 머물러 있으려니, 중생이 劫이 다하여 큰 불에 타버리게 될 때라도 나의 此土는 安穩하여 天人에 찬탄하리라. …….(略)……. 나의 淨土는 험리지 않으나, 그러나 중생은 불에 타서(燒盡) 근심 고통 가득함을 여기에서 다 보노라.⁸⁾

三災에도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淨土에 久遠實成의 釋迦佛이 머무르고 있다고 설하는 일단인데, 여기 『法華經』의 정토를 뒤에 釋迦의 靈山淨土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게 강조된 정토의 觀念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이 부분의 원문인 梵文은 Ksetra로서 즉 「國土」란 의미의 말뿐이며, 「淨」에 상당한 말은 없다. 竺法護가 번역한 『正法華經』 「如來現壽品」에는 이 부분을 「吾此佛土」라고 번역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淨土」라는 번역어는 역시 구마라집의 독자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⁹⁾

구마라집의 『法華經』 제4권 「五百弟子授記品」에 富樓那가 佛陀로부터 當來 作佛의 受記를 받고 淨佛國土의 수행을 하여 그 결과로 「부루나 비구는 공덕이 모두 원만히 성취되어 드디어 이 淨土를 얻게 되었다.(富樓那比丘 功德悉成滿, 當得斯淨土, 賢聖衆甚多.)」라고 설하고 있는 것처럼, 부루나 존자가 보살행을 닦아 淨土를 성취한 것을 설하고 있다.¹⁰⁾

여기에도 구마라집은 淨土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原語인 梵本에는 ksetravara (훌륭한 國土)이며, 이 말에도 역시 淸淨이란 의미는 없다. 竺法護의 『正法華經』에는 「佛國土」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淨土란 번역어는 찾아 볼 수가 없다.¹¹⁾

8 『大正藏』 9-43c

9 『大正藏』 9-115a

10 『大正藏』 9-28b

이렇게 볼 때 「淨土」라는 번역어는 구마라집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말이며, 아마도 그가 佛國土를 대칭한 말로서 창작한 의미로 볼 수 있다.

2) 菩薩行으로서의 淨土

이상의 인용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法華經」에서 설하고 있는 靈山淨土의 思想과 「維摩經」에서 「보살이 淨土를 얻으려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중국불교 淨土敎의 교리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여기에 보이는 淨土는 釋迦의 정토이며, 또한 보살의 淨土이다. 따라서 초기에 성립한 정토敎가 「諸佛의 淨土」를 기초로 한 淨土敎였었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역시 구마라집이 번역한 「十住毘婆沙論」 제 3권 「釋願品」에도 淨土라는 번역어가 있다.

즉 「釋願品」에 衆生功德과 行業功德의 두 功德을 「淨土」라고 이름하여 說하고, 또 「간략히 淨土의 모습(相)을 설함」이라고 말하고 十相을 들고 있다.¹²⁾

또 「十住毘婆沙論」 제 8권에도 「以正願淨土」¹³⁾라는 번역어가 보이는데, 모두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켜 불국토를 청정케 하는 실천행을 淨土라고 부르고 있다.

「十住毘婆沙論」의 「易行品」에는 阿彌陀佛의 교리가 說해진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구마라집은 그곳에 「淨土」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11 「大正藏」 9-96b, 平川彰의 上掲 논문 참조.

12 「大正藏」 26-32a

13 「大正藏」 26-64c

이처럼 淨土라는 번역어는 구마라집이 불국토라는 말을 창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의 중국 불교에서 중요한 불교 교리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마라집의 정토는 諸佛의 정토를 의미하는 말이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로 한정하여 지칭한 것은 아닌 것이다.

小本『阿彌陀經』도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이지만, 그 가운데에 「淨土」란 말은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다. 그가 극락을 淨土라고 표현하려고 했었다면, 분명히 『阿彌陀經』에 「淨土」나 혹은 「극락정토」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타경』에 「정토」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구마라집이 사용한 「정토」라는 말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諸佛의 淨土, 내지 보살의 淨土行을 주장한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구마라집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淨土」로 표현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아미타경』의 異本人 玄奘이 번역한 『稱讚淨土佛攝受經』의 翻譯本과 대조해 볼 때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다. 玄奘은 極樂을 淨土라고 이해하고 번역문에 적극적으로 그 말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마라집은 극락정토로 보질 않았던 것이다.¹⁴⁾

3) 極樂 淨土

淨土의 대표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 極樂이다. 極樂이란 말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阿彌陀經』에서 「그 나라에 중생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없으며, 여러 가지의 즐거움(樂)만을 받는다. 그래서 極樂이라

고 이름한다.¹⁵⁾ 라고 번역한 것이 최초인데, 이 말의 원어(산스크리트)는 Sukhavati (즐거움(樂)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을 漢譯 경전에서는 安樂·極樂·安養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七佛通戒로 잘 알려진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이라는 말도 똑 같이 寂滅, 즉 열반의 경지가 生滅의 괴로움(苦)에서 해탈된 즐거움의 세계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淨土三部經에서는 그밖에 康僧鎧의 번역으로 전하고 있는 「無量壽經」에서는 Sukhavati라는 말을 「安樂」과 「安」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經典에도 極樂이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高麗本에 한 번 보이지만, 이것은 뒤에 改寫된 것이라고 한다.

晝良耶舍가 번역한 「觀無量壽經」은 그 이후에 번역된 것인데, Sukhavati를 오직 極樂이란 말로만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구마라집의 「阿彌陀經」의 번역어를 그대로 계승하여 사용한 것이다.

天親의 「淨土論」에 「世尊我一心, 歸命盡十方, 無碍光如來, 願生安養國」¹⁶⁾ 이라고 발원하고 있는 것처럼, 극락을 安養國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淨土의 果報는 二種の 譏嫌의 허물(過)을 여윈다」¹⁷⁾ 라고 설하고 있다.¹⁸⁾

15 「大正藏」 12-346c~348c

16 「大正藏」 26-230c

17 「大正藏」 26-232a

18 종교적인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는 極樂이나,至高,至善,至聖,至極至誠,崇高,全知全能,極樂淨土, 혹은 無邊·無量(壽·光·樂) 無盡·無上(佛道) 등의 四弘誓願이나, 絶對 등 대개의 언어적인 표현들이 많다. 이러한 極限을 강조하는 것은 추상적인 思考로서 宗教의 입장을 특정 지을 수가 있는데, 宗教에서 이러한 극한적인 주장을 하는 관습은, 같은 추상적인 思考 일지라도 엄밀한 論理 過程을 고집하는 數學이나 哲學과는 다르다. 수학과 철학은 최후에 極限이 인출되지만 종교에서는 「처음에 極限이 있다」

즉 종교는 極限의 세계에서, 즉 절대적 경지,最上의 到達處에서 현실의 세계로 逆流

3. 초기 선종과 정토종의 一行三昧

중국불교 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체계의 성과를 이룬 것은天台와 華嚴의 교학이라고 할 수 있고, 실천적으로는 止觀과 念佛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 수행의 방향을 갖게 된 것은天台智顗(538~598)가 『摩訶止觀』을 완성하여 중국불교계에 제시한 이후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마하지관』은 종래 전불교의 실천사상을 망라하는 위대한 종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은 원대하고 복잡하지만, 중심이 되는 실천은 四種三昧라고 할 수 있다. 즉 常坐三昧, 常行三昧, 半行半坐三昧, 非行非坐三昧인데, 사실 천태의 四種三昧는 결국 坐와 行의 두 가지 실천으로 귀결되며, 내용적으로 坐는 좌선수행, 行은 念佛수행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특히 지의는 『마하지관』 제2권에 四種三昧 가운데 常坐三昧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로 常坐三昧는 『文殊說般若經』과 『文殊問般若經』 이 두 般若經에 나오며, 一行三昧라고 한다.²¹⁾

하고 있으며, 철학과 수학은 하나 하나의 단계에서 출발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발전되어 최상의 목적지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종교의 세계는 그 極限의 경계를 향한 자기 향상의 출발점을 믿음(信)으로 하고 있다.

19 大野榮人, 『天台止觀成立史研究』, 日本:法藏館, 平成 6年, p.338

20 『摩訶止觀』 제2권上

二明勸進四種三昧,入菩薩位.說是止觀者,夫欲登妙位,非行不階,善解嚴搖醍醐可獲.法華云,又見佛子修種種行以求佛道,行法衆多,略言其四.一常坐,二常行,三半行半坐,四非行非坐.通稱三昧者,調直定也.大論云,善心一處住不動,是名三昧. (『大正藏』 46-11a)

21 一常坐者 出文殊說,文殊問兩般若.名爲一行三昧. (『大正藏』 46-11a)

지의가 常坐三昧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一行三昧說은 梁의 曼陀羅仙이 번역한 『文殊說般若經』과 『문수사리문경』에 의거한 것인데, 중국불교에서는 이 一行三昧說에 의거하여 선과 염불의 수행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었다.²²⁾

즉 천태지의가 『마하지관』의 四種三昧를 제시한 이후에 一行三昧라는 실천으로 선과 염불의 수행이 체계 있게 확산되면서 불교 수행의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또, 지의의 晩年頃에 성립된 『대승기신론』의 실천 수행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는 「修行信心分」에는 止觀과 念佛의 실천 수행을 제시하고, 一行三昧로서 止觀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승기신론』과 관계가 깊은 隋나라 菩提燈이 번역한 『占察善惡業報經』에도 똑같은 一行三昧를 강조하고 있다.²³⁾

말하자면 一行三昧가 처음 『반야경』에서 주장하여 『문수설반야경』이 번역되면서, 특히 선종과 염불수행의 정토종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천태지의의 『마하지관』에서 주장된 이후의 일이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일행삼매의 주장이 隋 唐代的 초기에 선종과 염불수행의 근거로서 주장하게 된 배경이, 교학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불교의 입장에서 단순한 수행체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선종의 第四祖 道信은 좌선수행의 실천으로 一行三昧를 강조하고

22 『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大正藏』 8-726a)

『文殊師利問經』(『大正藏』 14-492b)

정성본,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민족사, 1991, p.224

23 『대승기신론』(『大正藏』 32-582b)

『占察善惡業報經』 卷下 (『大正藏』 17-908b)

있으며, 정토종의曇鸞(476~542?)은 『讚阿彌陀佛偈』에 『문수반야경』을 처음으로 인용하고, 道綽(567~645)의 『安樂集』卷下에는 般舟삼매와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설의 後部를 念佛三昧로 하고 있다. 善導(613~681)는 『往生禮讚偈』 前序에 一行三昧를 專稱佛名の 일행삼매로서 引證하고 그 의의를 專用하게 됨으로써 의의 焰불 수행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²⁴⁾

말하자면, 『문수설반야경』에서 주장하는 일행삼매의 첫 번째는 곧바로 眞如法界는 평등한 一相이라고 觀하는 理觀의 일행삼매와, 두 번째의 稱名の 일행삼매의 실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친견하는 事觀의 입장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정토종에서는 두 번째의 事觀의 일행삼매에 의거하여 아미타불을 마음에 두고서 청명염불의 一行에 專修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聖道敎典의 사상적 교리적 근거로 삼고, 『문수반야경』의 일행삼매를 토대로 하여 정토교의 焰불수행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선종에서나 정토종의 조사들은, 일행삼매에 의한 단순하고 간단한 실천 수행으로 새로운 실천불교의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불교 교학과 사상은 원대하고 심원하며, 그러한 전불교를 체계있고 논리적으로 종합하는 교학적인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 수행으로, 그러한 진실을 자기 자신의 지혜와 인격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실천 수행은 어디까지나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선종과 정토종에서 이러한 문제점

24 曇鸞 『讚阿彌陀佛偈』 (『大正藏』 47-420c)

道綽 『安樂集』 卷下 (『大正藏』 47-14c)

善導 『往生禮讚偈』 (『大正藏』 47-439a)

에 주목하고, 일행삼매의 실천수행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종은 좌선을 통한 一行三昧로, 정토종은 口稱염불의 일행삼매로서 구체적인 생활종교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楞伽師資記』 「道信章」에는 일행삼매의 좌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이 이 법문은 『楞伽經』의 諸佛의 마음을 第一로 하는 것에 의거하며, 또 『문수설반야경』의 一行三昧에 의거한다. 즉 부처를 念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妄念은 범부이다. 『문수설반야경』에 말씀하였다. “문수 사리는 말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일행삼매라고 합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법계는 一相이다. 因緣을 법계에 연결하는 것을 바로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반야바라밀을 들고, 경전에서 설한 말씀처럼 修學해야 한다. 그런 뒤에 능히 일행삼매에 든다면 法界와 같이 인연하여 不退, 不壞, 不思議로서 무애하고 無相의 경지를 얻으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삼매에 들고자 한다면, 조용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산란심을 버리고, 모습과 형체에 구애없이 마음에 一佛을 새겨두고, 오로지 그 부처님의 名字를 외우고, 부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단정히 몸을 向하게 하며, 능히 一佛을 念하는 마음이 念念相續하게 된다면 이 念하는 가운데 능히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왜냐하면 一佛을 念하는 공덕이 무량 무변하며, 역시 무량한 제불의 공덕과 둘이 없고, 不思議하며, 불법과 같아 분별이 없어, 모두 一如의 경지에서 最正覺을 이루며, 모두가 무량의 공덕과 무량의 辯才를 구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행삼매에 드는 사람은 모두 항하사의 제불과 법계와의 차별상이 없음을 안다.’라고.

대개 우리들의 몸과 마음(身心方寸)이나 다리로 걷는 것(舉足下足)이 모두 항상 깨달음의 道場에 있으며, 일상 생활의 모든 행위가 모두 깨달음(菩提) 그 자체인 것이다.²⁵⁾

도신이 『문수설반야경』에서 설하고 있는 일행삼매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도신이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에 주목하게 된 것은 아마도 천태지의의 「마하지관」과 천태종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데, 도신은 좌선수행의 일행삼매를 주장하면서, 중국선종의 새로운 토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생략하고, 도신이 주장하고 있는 念佛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²⁵⁾

北魏 시대에 중국 정토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曇鸞은 칭명염불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신이 활약한 唐代的 정토종에서 일행삼매로서 주장한 念佛은 稱名念佛이었다.

그런데 여기 도신이 주장하는 염불은, 부처님을 念하는 좌선 염불인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도신이 주장한 「부처를 念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妄念은 범부이다(念佛心是佛, 妄念是凡夫)」라는 일단은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일행삼매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대품반야경』의 일절인데, 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염불이며, 마음을 여의고 달리 부처가 없다는 의미이다.

『楞伽師資記』 「도신장」에는 또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주장하고 있다.

『普賢觀經』에 말했다. '일세 業障의 바다는 모두 妄想으로부터 생겨난다. 만약 참회하려는 사람은 단정히 앉아서 (제법의) 實相을 念하도록 하라.'라고. 이것이 바로 第一의 참회라고 하며, 三毒의 마음, 攀緣하는 마음, 覺觀의 마음을 모두 제거 할 수 있다. 부처를 念하여 心心相續한다면,

25 『大正藏』 85-1286c

26 정성본,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민족사, 1991, p.224

홀연히 맑고 적적하여 또다시 인연에 반연(所緣)하는 念이 없다. 『대품경』에 말했다. '念하는 대상이 없는 것이 바로 부처를 念하는 것이라고 한다.(無所念者,是名念佛)' 라고. 무엇이 念하는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즉 부처를 念하는 마음을 念하는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마음을 여의고 달리 부처가 있을 수가 없고, 부처를 여의고 달리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 부처를 念하는 것은, 곧 바로 마음을 念하는 것이며, 마음을 구하는 것은, 곧 바로 부처를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형상이 없고, 부처도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도리를 안다면 곧 이것이 安心이며, 항상 부처를 기억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다시 추구하는 마음도 없다. 잘 보라, 이러한 마음이 여래의 진실 법성의 몸인 것이며, 또한 正法이라고 하며, 또한 불성이라고 하며, 또한 제법의 實性, 實際라고 하며, 또한 淨土라고 하며, 또한 보리, 金剛三昧, 本覺 등이라고 하며, 또한 涅槃界, 般若 등이라고 한다.²⁷⁾

여기서 인용한 『보현관경』은 『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을 말하며 『無量義經』과 『법화경』과 함께 法華三經으로 불리며 천태종에서 중시하고 있는 경이다. 경전에는 명상하여 보현보살이 여섯 개의 象牙를 가진 白象을 타고 많은 보살과 함께 자신의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관찰하고, 순수한 귀의의 마음을 가지고 참회할 것을 설하고 있는 참회죄업의 경으로 보고 있다.²⁸⁾

그리고 『大品經』은 『마하반야바라밀경』 제23권 「三次品」의 구절인데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대자대비를 부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일체의 諸法の 自性은 없기(無)때문이며, 만약 법의 자성이 없는 이것이 非法이다. 念하는 대상이 없는 것이 바로 念佛이다. ……(略)

27 『大正藏』 85-1287a

28 『大正藏』 9-393b

만약 法에 自性이 없다면 이것이 非法인 것이며, 念하는 대상이 없는 것이 되기에 이것이 바로 念佛인 것이다.²⁹⁾

즉 도신이 주장하는 念佛은 자성의 법신을 깨닫는 念佛이며, 念佛의 구체적인 실천사상을 『반야경』을 토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염불하는 마음과 염불하는 대상까지 완전히 없어진 경지를 도신은 진실된 法性の 法身으로, 또한 淨土라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楞伽師資記』 도신장에 도신의 염불은 정토종에서 주장하는 서방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염불이 아닌 것임을 다음의 일단에서도 확인할 할 수가 있다.

또 질문했다. ‘시간을 선택하여 수행함에 어떻게 觀行해야 합니까?’ 도신이 대답했다. ‘곧바로 반드시 마음에 내맡겨 任運토록 하라.’ 또 질문했다. ‘서방을 향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신이 대답했다. ‘만약 마음의 본래가 不生不滅로서 구경에 청정함을 안다면 곧 이것이 청정한 佛國土인 것인데, 또다시 西方을 향할 필요가 있는가? 『화엄경』에 “무량겁이 一念이며, 一念이 무량겁이다.” 라고 말한다. 잘 알아야 한다. 一方이 無量方이며 무량방이 一方이라는 사실을 부처는 鈍根의 중생을 위하여 西方을 향하도록 설한 것이지 영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다.³⁰⁾

도신은 당시 정토종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방정토에 왕생하려고 念佛하는 발상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화엄경』의 원융적인 세계를 대치시켜서, 서방정토의 사상은 둔한 근기의 중생을 위해

29 不應以大慈大悲念佛,何以故,是諸法自性無,若法自性無是爲非法,無所念是爲念佛

……(略) 若法自性無 是爲非法無所念,是爲念佛。(『大正藏』 8-385c)

30 『大正藏』 85-1287c

서 설한 방편법문이며, 영리한 사람에 대한 설법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도신은 당시 정토종에서 주장하는 서방 정토의 왕생을 위한 念佛을 상당히 차원이 낮은 鈍根人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一念이 곧 청정한 불국토인데 또다시 서방정토를 구해서 무엇 하는가? 라고 힐문하고 있다.

뒤에서 논하겠지만 『육조단경』과 조사선에서 주장하는 唯心淨土의 사상도, 도신의 일행삼매 念佛의 실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楞伽師資記』 「구나발타라전」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大法師(구나발타라)가 말했다. 『楞伽經』에서 “어떻게 그 念을 청정케 할 것인가?” 라고 설한 것은 妄想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즉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부처를 念하여 지극한 힘을 더하는 것이며, 한 생각 한 생각(念念)에 연결하여 주력하며 끊어짐이 없도록 하여, 寂然히 無念의 경지에서 본래 텅 비어 청정함을 깨닫는 것이다.³¹⁾

선종에서 주장하는 念佛은, 부처를 念하여 번뇌 망념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선수행인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에 일체의 번뇌 망념이 본래 없고 텅비어 청정한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수행인 것이다.

『楞伽師資記』 「도신장」에는 『무량수경』의 다음과 같은 일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31 大法師云,楞伽經說,云何淨其念,遠勿令妄想,勿令漏念,念佛極着力,念念連注不斷.

寂然無念,證本空淨也. (『大正藏』 85-1284c)

『무량수경』에 말하기를 ‘제불의 法身이 일체중생의 心想에 드니, 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룬다.’ 라고 했다. 따라서 부처는 곧 이 마음이며, 마음밖에 또다시 달리 부처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³²⁾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무량수경』은 『관무량수경』을 말하는 데,³³⁾ 경에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다음은 마땅히 부처님을 念想해야 한다. 왜냐하면 諸佛·如來는 바로 法界身으로서 일체중생의 心想中에 들기 때문에, 그대들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상할 때에 이 마음은, 즉 부처님의 三十二相 八十의 좋은 상호를 따른다면, 이 마음은 부처를 이루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가 되며, 제불의 正遍知海는 心想에서 생긴다.³⁴⁾

특히 「是心作佛 是心是佛」이란 주장은, 뒤에 선종에서 신회나 마조가 주장하는 卽心是佛의 근원이 되는 말이다. 중생심은 원래 법신의 불성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觀想이 성취되면 법신이 개현되어 사람들은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是心作佛」인 것이다. 따라서 중생심 밖에 달리 부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是心是佛」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신도 「부처는 곧 이 마음(佛卽是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관무량수경』의 觀法을 自性清淨佛性觀으로 해석하여 선정의

32 無量壽經云,諸佛法身入一切衆生心想,是心是佛,是心作佛.當知佛卽是心,心外更無別佛也. (『大正藏』 85-1288a)

33 『관무량수경』 (『大正藏』 12-343a)

34 次當想佛,所以者何,諸佛如來,是法界身,遍入一切衆生心想中,是故汝等心想佛時,是心卽是三十二相八十隨形好,是心作佛,是心是佛.諸佛正遍知海,從心想生. (『大正藏』 12-343a)

수행으로 자성의 부처를 깨닫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도신의 제자인 五祖弘忍(602~675)의 『修心要論(最上乘論)』에도 『관무량수경』에 의지하여 좌선 수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처음 발심하여 좌선을 배우는 사람은 『관무량수경』에 의지하여 단정히 앉아, 바른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마음으로 앞을 평탄하게 보며, 마음에 따라 멀고 가까이하여 하나의 태양을 念想하고, 眞心을 지키며, 생각 생각에 住하지 말고, 호흡(氣息)을 잘 조절하되 거칠게 하거나 가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病苦가 될 것이다. 밤에 좌선 할 때는 일체 선악의 경계를 보기도 하고, 靑黃赤白 등의 여러 三昧에 들게 되며, 혹은 때로는 몸에서 큰 광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나, 때로는 여래의 모습을 보게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될지라도 단지 마음을 수습하여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모두 空한 것이며 妄想으로 보이는 것이다.³⁵⁾

홍인은 『관무량수경』의 日想觀에 의거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좌선 수행법을 설하고 있다. 『관무량수경』은 日想觀을 비롯하여 16 관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十六觀經』이라고도 한다.³⁶⁾

이 日想觀은 태양이 서쪽 하늘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광경을 觀想하는 방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지평선 저쪽에 태양이 日沒하는

35 『大正藏』 48-378a

36 佛告韋提希汝及衆生,應當專心繫念一處,想於西方,云何作想.凡作想者,一切衆生,自非生盲有目之徒,皆見日沒,當起想念,正坐西方,諦觀於日,令心堅住,專想不移,見日欲於沒狀如懸鼓,既見日已,閉目開目,皆令明了,是爲日想名曰初觀. (『大正藏』 12-341c)

홍인의 日想觀에 대해서는 정성본,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민족사, 1991, p.298

모습을 心中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장엄정토 및 아미타불을 관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홍인의 日想觀은 『능가사자기』 「홍인장」에서 주장하는 一字觀의 선법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그런데 홍인은 이러한 『관무량수경』의 日想觀을 응용하여,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진실한 자신의 本心을 지키는 守心의 선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홍인이 『修心要論』에 修道論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도 분명하다.

대개 수도의 근본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신심이 본래 청정하고 不生 不滅하여 분별도 없는 자성이 원만하고 청정한 마음을 깨닫고 아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의 스승이며, 곧 시방의 제불을 숭하는 것보다도 더 수승한 일이다.³⁸⁾

홍인은 당시 정토종 등에서 念佛수행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전제로 하여 선수행의 본질이 자심을 깨닫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稱名念佛이 많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법보기』의 다음과 같은 일단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홍인과 법여, 대통신수선사의 시대에는 법문이 크게 확대되어 수행자의 根機를 문제로 삼지 않았다. 한결같이 신속하게 佛名을 숭하도록 하고, 각자의 청정한 마음으로 친히 스스로 제시하도록 하여, 스승은 理法에 비추어서 법을 전수했다. 그들의 전법은 여전히 비밀스럽게 실행되었고, 空言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을 전수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깊은 뜻을

37 정성본,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민족사, 1991, p.299

38 夫修道之本體 須識當身心本來清淨,不生不滅,無有分別.自性圓滿清淨之心.此是本師乃謗念十方諸佛. (『大正藏』 48-377a)

엿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요즘 수행자는 그것을 세속의 이야기로 삼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으로 삼고, 체득하지 못하고도 체득한 것으로 생각하며, 念佛 淨心の 방편수행도 이것 저것 세간의 무리들과 혼합되어 진여의 법신을 체득할 의미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슬픈 일이다. 이러한 무리들이 念性이 본래 청정하고 공간 것인데, 어찌 念處가 있을 수 있겠는가? 청정한 본성은 이미 寂滅한데 어찌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가? 念하는 마음도 청정함도 모두 잊어버릴 때 마음은 자연히 비춘다.³⁹⁾

당시 중국 불교계에서는 선과 정토종에서 똑같이 함께 방편으로 念佛 수행을 실천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깨달음을 체득하도록 주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선종에서도 정토종의 염불 수행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수행의 내용은 다르게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있다. 여기 인용문의 마지막에 「염불하는 마음이나 청정하게 하려는 의식을 함께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말은, 선 수행의 본질을 단적으로 밝히고 있는 말이다.

또한 신수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觀心論(破相論)」에도 염불 수행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질문]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것처럼, 至心으로 念佛하면 반드시 서방정토에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염불문의 수행으로 成佛된다고 했는데, 선문에서는 성불하기 위해서는 어째서 觀心の 수행을 빌려서 해탈을 구하도록 합니까?

[대답] 念佛하는 사람은 반드시 正念으로 해야 한다. 了義는 바른 것이

39 柳田聖山, 『初期の禪史 1』, 일본:筑摩書店, 1971, p.420

고, 不了義는 삿된 것이다. 正念으로 염불하면 서방에 왕생하지만, 邪念으로 어찌 피안에 도달하겠는가?

부처(佛)란 깨달음(覺)이니, 身心을 깨닫고(覺察) 惡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念이란 기억함이니, 계행을 기억해 지녀서 잊지 않고 精進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알아야 正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念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통발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얻으면 통발을 잊고, 말에 의지하여 뜻을 얻지만, 뜻을 얻으면 말을 잊는다.

이미 念佛이라고 稱한다면, 반드시 念佛 그 자체의 道를 실천해야 한다. 만약 마음이 진실되지 않고 입으로 헛되이 名號만 외운다면, 三毒이 안으로 치성하고, 我相과 人相의 차별심이 마음에 가득차니, 無明心으로 밖을 향하여 부처를 구해도 한갓 헛수고가 될 뿐 무슨 공덕이 되리요!

또 외우는 것(誦)과 念하는 것은 이치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입으로 외우는 것이 誦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깨달음을 실천(覺行)하는 門이요, 외우는 것은 입에 있는 것이므로 音聲의 모양(相)이니 밖에 집착하여 이치를 구하니 옳지 못한 것이다.

과거의 여러 성인들이 念佛을 수행한 것은 外說이 아니라, 오직 內心으로 실천한 것이다. 마음은 많은 善行의 근원이며, 마음은 많은 德行의 주체이다. 열반의 즐거움도 眞心에서 생기고, 삼계의 윤회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은 出世의 문턱이요, 마음은 해탈의 나루터이다. 문턱을 아는 사람이 어찌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고, 나루터를 아는 사람이 어찌 도달하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는가?40)

돈황본 『관심론』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내용은 같다.

당시 정토종에서 염불수행으로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을 주장

하고 있는데 대하여, 신수는 이러한 정토종의 활발한 활동에 주목하면서, 선불교의 정신에서 비판하고 있는 일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念佛을 念과 佛로 나누어서 念佛의 참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이다. 신수는 「부처(佛)란 깨달음(覺)이니, 身心을 깨닫(覺察)고, 惡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念이란 기억함이니, 계행을 기억해 지녀서 잊지 않고 精進하는 것이다.(佛者覺也, 所爲覺察身心. 勿令起惡也. 念者憶也, 所爲憶持戒行, 不忘精進.)」라고 念佛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身心을 깨닫고 惡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란, 번뇌 망념이 없는 청정한 몸과 마음을 말한다. 惡이 일어나지 않는 말은 번뇌 妄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이에 따른 身·口·意 三業이 청정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念에 대해서 「계행의 실천과 정진」으로 해석하여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念佛을 선불교의 입장에서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佛)란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히 밝히고, 念은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현하는 실천행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란 깨달음(覺)이라는 기본적 입장에서, 念佛은 깨달음을 이루고 깨달음의 생활이 되는 실천행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만 名號를 외우는 것은 올바른 실천이 될 수 없고, 마음으로 자각하는 염불의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三毒心과 我相, 人相의 차별심을 극복하는 것은 외면적인 입으로 외우는 염불수행으로서는 아무런 효과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마음을 깨닫는 覺察과 觀心의 실천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念佛이 될 수 없고, 성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수가 「외우는 것(誦)과 念하는 것은 이치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

다. 입으로 외우는 것이 誦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念이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말은 뒤에 서산대사의 『禪家龜鑑』에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염불이란 입으로 외우는 것을 誦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을 念이라고 한다. 헛되이 입으로만 名號를 외우고 마음으로 念 하지 않으면 도를 닦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다.⁴¹⁾

그리고 서산대사는 다음과 같이 염불수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六字 法門은 결정코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마음으로 부처의 境界를 기억하여 잊지 말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며 분명히 一心不亂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과 입이 相應하여 하나가 된 것이 念佛이다.⁴²⁾

서산대사의 염불수행은 소위 말하는 念佛禪의 입장임을 알 수 있으며, 송대 이후로 선과 염불의 일치를 주장하는 선불교의 역사적인 성과를 토대로 한 주장인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念佛禪이란, 선종의 자각적인 지혜와, 정토종의 염불수행이 하나로 융용되어, 일반인들에게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찍이 五祖弘忍의 문하에서 분파한 宣什의 계통에서 「南山念佛門禪宗」이 一字念佛의 실천을 주장하며 四川에서 활약한 사실이 전하고 있다.⁴³⁾

41 念佛者在口曰誦,在心曰念,徒誦失念,於道無益.

42 阿彌陀佛六字法門,定出輪迴之捷徑.心則緣佛境界,憶持不忘,口則稱佛名號,分明不亂,如是心口相應,名曰念佛.

또한 四川 成都에서 淨衆宗을 이룬 신라출신의 無相대사가 引聲念佛을 실천하게 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돈황자료 「역대법보기」 「無相傳」에는 인성염불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金和尚은 매년 12월과 정월에 사부대중 백천만인을 위하여 수계설법을 하였다. 도량을 장엄하고 높은 단상에 올라 설법할 때에는 먼저 引聲念佛하여 一氣(一聲)의 숨을 모두 다 내쉬게 한 뒤에 목소리가 끊어지고, 한 생각의 妄念도 끊어졌을 때에 다음과 같이 섰다. '일체의 모든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無憶), 번뇌 妄念도 없이(無念), 忘却하지 말라(莫忘). 無憶은 成요, 無念은 定이며, 莫忘은 慧이다. 이 三句의 설법이 總持門이다' 라고.⁴³⁾

무상의 引聲念佛과 三句설법은 번뇌 망념이 없는 無念의 구체적인 실천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대중들에게 수계설법을 할 때에 대중들이 누구나 쉽게 실천 할 수 있도록 제시한 염불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三句를 三學에 배치하여 총지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無念의 경지를 체득하도록 하는 선사상인 것이다.⁴⁵⁾

달마의 법문으로 전하는 「血脈論」에도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다.

'성품을 깨닫지 못했더라도念佛하고 경전을 보시하고 계율을 지니고 잘 정진하여 널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못한다.' '어찌하여 부처를 이루지 못합니까?' '한 법이라도 얻은 것이

43 宗密 「圓覺經大疏鈔」 卷3下 (『卍續藏經』 14-279c)

정성본, 「신라선종의 연구」, 민족사, 1995, p.113

44 「大正藏」 51-185a

45 정성본,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민족사, 1991, p.690

정성본, 「정종 무상선사 연구」 「신라선종의 연구」, 민족사, 1995, p.79

있으면 이것은 하염없는 법이며 因果이며, 과보를 받음이며, 윤회하는 법이다.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기를 언제 부처를 이루랴! 부처를 이루려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한다. 성품을 보지 못하면 因果 등의 말이 모두 外道の 법이다. 만약 부처라면 外道の 법을 익히지 않는다.⁴⁶⁾

『혈맥론』에는 곳곳에 견성성불을 강조하면서, 견성하지 못하면 念佛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계율을 지켜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見性이란, 자기의 불성을 깨닫는 지혜로운 선의 생활을 말한다. 즉 사랑 분별심과 차별심, 번뇌 망념의 중생심으로 살지 말고, 각자의 佛性を 깨닫고 부처의 지혜로운 생활을 만들라고 강조한 말이다.

불성을 깨닫도록 주장하는 見性은, 불성의 자각적인 지혜의 작용이며, 일체의 번뇌 망념을 초월하고, 중생심의 生死輪廻의 괴로움(苦)을 벗어나는 구체적인 수행이기 때문이다.

4. 선불교의 정토관

초기 선종에서 주장하는 一行三昧나 念佛은, 정토종에서 주장하는 서방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염불이 아니라, 일체의 번뇌 망념을 초월하여 無念의 경지를 체득하는 觀想 念佛이었다. 『관무량수경』에서 설하는 是心是佛을 선불교에서 即心是佛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각의 종교인 불교의 근본 정신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종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念佛은 각자의 불성을 깨닫

46 『大正藏』 48-374a

는 염불이며, 또한 깨달음의 경지를 淨土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불교의 정토사상을 종합하여 돈황본 『육조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지사 위거는 예배하고 또 다시 질문했다. '弟子가 보기로는 출가승이나 재가의 수행자들이 항상 아미타불을念佛하며 서방 극락정토에 往生하기를 발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컨대 和尚께서는 그 곳에 往生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대사는 말했다. '지사여 잘 들으시오. 내가 그대를 위해서 說하리라. 세존께서 사위국에 계실 적에 서방 극락에 대하여 설하여 사람들을 인도하고 교화하셨다. 경전에도 분명히 "西方이 여기서 멀지 않다." 라고 설하고 있다. 멀다고 말한 것은 오직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가까이 있다고 말한 것은 단지 근기가 높고 지혜를 갖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인간에게 능력의 차이로서 상근기·하근기의 두 종류가 있으나, 가르침(法)에는 둘이 있을 수 없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에 더디고(遲) 빠름(疾)이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을 의지하여)念佛로서 극락정토에 왕생하려고 하지만, 깨달은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佛土가 청정하다."라고. 지사여! 東方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마음이 깨끗하다면 죄가 없지만, 西方이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東方에나 西方이 있는 곳에 往生하기를 願하지만, 동방이나 서방이 모두 똑같다. 마음(心地)에 단지 不淨이 없으면, 西方은 여기서 멀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 不淨한 생각을 일으키면,念佛하여 往生하고자 하지만 이르기 어렵다. 十惡을 제거하면 곧 十萬里를 가게 되고, 八邪가 없으면 곧 八千里를 지난다. 오직 直心으로 실행하면 마치 손가락을 통기는 사이에 곧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지사여! 오직 十善을 닦도록 하라. 어찌 새삼스럽게

왕생을 원하는가? 十惡의 마음을 끊지 않고, 어찌 부처님이 곧 마중 나와 주기를 바라는가?

만약 無生의 頓法을 깨달으면 서방정토를 여기서 순식간에 볼 수 있을 것이다. 돈교의 대승을 깨닫지 못한다면, 염불하여도 왕생하기엔 길이 멀기만 하다. 어찌 서방에 도달할 수 있으리요.

六祖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사를 위하여 서방 극락정토를 순식간에 옮겨와 눈앞에서 곧바로 보게 하리라. 지사는 보기를 원하는가?'

지사는 예배하면서 말했다. '만약 여기서 볼 수 있다면 어찌 왕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라긴대 화상께서 자비로서 서방의 극락정토를 나타내 보여 주신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잠시 서방을 보이겠지만, 의심이 없으면 (西方은) 곧 바로 사라질 것이다.'

大衆들이 놀라서 무슨 영문인지 잘 알 수 없었다.

大師께서 말씀하셨다. '大衆 여러분! 잘 듣도록 하라. 世上 사람들이 바로 色身은 城과 같고, 눈·귀·코·혀는 마치 城門과 같다. 밖으로는 눈, 귀, 코, 혀, 몸의 五門이 있고, 안으로는 意識의 門이 있다. 마음은 곧 바로 土地이요, 本性은 곧 바로 王과 같다. 本性이 있으면 王이 있고, 本性이 떠나가면 王은 없다. 本性이 있어야 몸과 마음이 있을 수 있으며, 本性이 떠나면 몸과 마음은 파괴된다. 부처는 自己의 本性이 부처가 되는 것이니, 몸밖을 向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자기의 本性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의 本性이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인 것이다. 자비가 바로 관음이요, 歡喜(喜捨)의 마음을 세지(勢至)라고 부른다. 스스로 청정한 것이 바로 석가요, 평상의 솔직한 마음이 미륵이다.

人相과 我相은 바로 須彌山이요, 邪心은 大海이고, 煩惱는 波浪이다. 毒心은 惡龍이고, 塵勞는 물고기와 자라(魚鼈)이다. 虛妄은 鬼神이고, 三毒의 마음은 곧 바로 地獄이며 愚癡는 다름 아닌 畜生이다.

十善은 바로 天堂이며, 人相과 我相이 없으면 須彌山도 저절로 무너지게 된다. 邪心이 제거되면 바닷물도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파도도 없어지며, 毒害가 없어지면 魚龍도 없어진다.

自心の 대지에 覺性の 여래가 대지체의 광명을 놓아 비추니 六門이 청정

하게 되고, 六欲의 諸天에 까지 비추고 있다. (自性)이 內照하여 三毒이 제거되면, 지옥은 단번에 소멸되어 안과 밖이 분명히 밝아져 서방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修行을 닦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좌석의 청중들은 이와 같은 설법을 듣고는 찬탄하는 목소리가 하늘에 미쳤으며, 어리석은 사람들도 모두가 곧바로 분명히 각자의 本性을 보게 되었다.

지사는 예배하면서 찬탄하였다. '훌륭하시고 훌륭하십니다. 다시 바라옵건데 널리 法界의 모든 중생들과 이 법문을 듣는 자는 모두 一時에 깨닫게 되기를!'⁴⁷⁾

47 使君禮拜。又問,「弟子見僧俗, 常念阿彌陀佛, 願往生西方。請和尚說 得生彼否。望爲破疑。」

大師言,「使君聽, 慧能與說。世尊在舍衛城 說西方引化, 經文分明, 去此不遠。只爲下根說遠, 說近只緣上智。人有兩種, 法無兩般。迷悟有殊 見有遲疾。迷人念佛生彼, 悟者自淨其心。所以佛言, 隨其心淨, 則佛土淨。使君, 東方但淨心無罪。西方心不淨有愆, 迷人願生東方 西方所在處, 並皆一種。心地但無不淨, 西方去此不遠, 心起不淨之心, 念佛往生難到。除十惡即行十萬, 無八邪即過八千, 但行直心 到如彈指。使君, 但行十善, 何須更願往生。不斷十惡之心, 何佛即來迎請。若悟無生頓法, 見西方只在剎那。不悟頓教大乘, 念佛往生路遠, 如何得達。」

六祖言,「慧能與使君, 移西方剎那間, 目前便見。使君願見否。」

使君禮拜(言),「若此得見, 何須往生。願和尚慈悲, 爲現西方, 大善。」

大師言,「一時見西方, 無疑即散。」

大眾愕然, 莫知何事。

大師曰,「大眾大眾, 作意聽, 世人自色身是城, 眼耳鼻舌身即是城門, 外有五門, 內有意門。心即是地, 性即是王。性在王在, 性去王無。性在身心存, 性去身心壞。佛是自性作, 莫向身外求。自性迷, 佛即是衆生。自性悟, 衆生即是佛。慈悲即是觀音, 喜捨名爲勢至, 能淨是釋迦, 平直即是彌勒。人我即是須彌, 邪心即是海水 煩惱即是波浪, 毒心即是惡龍, 塵勞即是魚鼈, 虛妄即是鬼神, 三毒即是地獄, 愚癡即是畜生, 十善即是天堂。無人我, 須彌自倒, 除邪心, 海水竭。煩惱無, 波浪滅。毒害除, 魚龍絕。自心地上覺性如來, 施大智慧光明, 照耀六門清淨, 照破六欲諸天下, 自性內照, 三毒若除, 地獄一時消滅。內外明徹, 不異西方。不作此修, 如何到彼。」

돈황본 『육조단경』에서도 당시 널리 아미타불을 염불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주장하는 염불수행에 대한 관심을 혜능에게 질문하고 있다. 선불교의 입장에서 염불수행과 극락왕생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혜능의 설법으로 이 일단에 전부 제시하고 있다.

혜능의 설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 1) 서방극락정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 2) 마음이 청정하면 佛土가 청정하다.
- 3) 淨土는 마음이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

1) 서방정토는 가까이 있다.

혜능은 '세존께서 사위국에 계실 적에 서방 극락에 대하여 설하시어 사람들을 인도하고 교화하셨다. 경전에도 분명히 "西方이 여기서 멀지 않다."라고 설하고 있다. 멀다고 말한 것은 오직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가까이 있다고 말한 것은 단지 근기가 높고 지혜를 갖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혜능이 인용한 경전은 『관무량수경』의 다음과 같은 일절이다.

이때에 세존은 위제희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알겠는가? 아미타불은 여기서 멀리있지 않다(去此不遠)는 사실을 그대가 마땅히 繫念하여 분명히 저 국토를 관찰하도록 하라. 淨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나는 지금 그대를 위하여 널리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하며, 또한 미래세의 일체범부들이 淨業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三福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座下聞說，讚聲徹天，應是迷人，了然便見。使君禮拜，讚言，「善哉。善哉。普願法界衆生，聞者一時悟解。」

부모를 孝養하고, 스승을 奉事하며, 慈心으로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三歸를 受持하고, 많은 계율을 구족하고, 威儀를 잘 갖추는 것이다. 셋째는 보리심을 일으켜 因果를 깊이 믿으며,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수행자를 勸進하는 것이다. 이 三事を 淨業이라고 한다.⁴⁸⁾

사실 『아미타경』에서는 「여기로부터 서방으로 十萬億 佛土를 지난 곳에 한 세계가 있으니 극락이라고 한다. 그 국토에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며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있다.」라고 하며 그 국토에 중생은 많은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한다고 설하고 있다.⁴⁹⁾

그런데 『관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불은 지금 여기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去此不遠)」라고 설하며, 아미타불의 국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三事の 淨業을 닦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三事の 정업이란, 사실 삼보에 귀의하고, 계율을 지키며, 대승경전에 의거하여 지혜와 인격을 형성하는 三業淸淨의 수행을 말한다고 하겠다.

『首楞嚴經』 제5권에도 大勢至法王子가 52보살들과 함께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는 내용 중에, 無量光여래가 念佛三昧를 가르친 인연을 설하는 가운데, 「去佛不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고 念佛하면, 現前이나 當來에 결정코 부처를 볼 것이다. 부처는 여기를 떠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去佛不遠) 방편을 가차하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이 열림이 마치 染香人의 몸에 향기가 배듯 하리니 이것이 香光莊嚴이라고 한다. 나는 因地에서 念佛心으로 無生法忍을 체득했고, 지금도 이 세계에서 염불하는 사람들을 섭수하여

48 『大正藏』 12-341c

49 『大正藏』 12-346c

淨土에 돌아가게 합니다. 부처님이 圓通을 물으시니, 나의 생각에는 어느 것을 선택하지 말고 六根을 모두 섭수하여, 淨念이 서로 계속하여 삼매를 얻는 것이 第一이 되겠습니다.⁵⁰⁾

이 일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관무량수경』의 설법을 재편하여 염불 수행으로 무생법인을 체득하고,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인 淨土에 되돌아가게 하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念佛三昧의 경지가 다름 아닌 無量光여래의 淨土인 것임을 설한 것이다.

또 『관무량수경』에 다음과 같이 설한다.

저 善友에게 말했다. ‘그대여 만약 부처를 念할 수가 없다면 마땅히 無量壽佛의 名字를 稱하도록 하라.’고. 이와 같이 지심으로 소리내어 끊어지지 않게 하여 十念을 구족하여 『나무아미타불』을 稱하도록 하라. 부처의 이름을 稱하기 때문에 念念 가운데 80억겁에 지은 生死의 죄를 없애고 命終 時에 金蓮華가 마치 태양과 같이하여 그 사람 앞에 住하는 것을 보고, 一念頃에 곧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가 있으며, 蓮華가운데 12大劫 채우고 蓮華가 비로소 열리게 된다.⁵¹⁾

사실 『관무량수경』에는 「一念頃 卽得往生」이라는 말이 자주 보이며, 또 「만약 念佛한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곧 人中の 연꽃(분타리화)이다.」라고 설하고 있다.⁵²⁾

이러한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수능엄경』 제5권에서는, 「我本因地 以念佛心 入無生忍.」이라고 주장하고, 「대승

50 『大正藏』 19-128a~b

51 『大正藏』 12-346a

52 『관무량수경』

若念佛者 當知此人 卽是人中 分陀利華. (『大正藏』 12-346a~b)

기신론』에서는, 「뜻을 오로지 하여 念佛수행하는 인연으로 원력에 따라서 他方の 불국토에 왕생하리라.(以專意 念佛因緣 隨願得生 他方國土).」라고 염불수행으로 정토왕생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⁵³⁾

이렇게 볼 때 『육조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선불교의 정토관은, 『관무량수경』에서 설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방 십만억 佛土를 지난 극락국토의 아미타불의 국토에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이 번뇌, 망념을 여윈 청정한 진여 자성의 불성을 깨닫는 頓悟見性の 경지가 다름 아닌 타방국토에 왕생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十萬億 佛土」라는 표현은 중생의 사바세계와 부처의 극락 세계와의 거리라고 할 수 있으며, 穢土와 淨土와의 다른 차이점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이지, 절대 수치상의 거리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의상의 『法性偈』에서 「一念卽是無量劫」이라고 읊고 있는 것처럼, 불교의 경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有相의 공간과 시간 내지 수치상의 거리를 표현한 말이 아닌 것과 같다.

중생의 妄念世界를 穢土라고 하고, 부처의 열반 寂靜의 세계를 極樂淨土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며, 穢土와 淨土의 거리는 煩惱 妄念과 妄執 그 자체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煩惱 妄念과 탐착하는 妄執과 차별하는 분별심을 떠나, 어디서 十萬億이라는 수치상의 거리를 찾아 볼 수가 있겠는가?

53 『수능엄경』 제5권 (『大正藏』 19-128a)

『대승기신론』

懼謂信心難可成就,意欲退者,當知如來 有勝方便,攝護信心,謂以專意念佛因緣,隨願得生 他方佛土.常見於佛,永離惡道,如修多羅說,若人專念西方極樂世界 阿彌陀佛,所修善根迴向,願求生彼世界,卽得往生.常見佛故,終無有退.若觀彼佛眞如法身,常勤修習,畢竟得生.住正定故. (『大正藏』 32-583a)

중생의 我相, 人相과 穢土와 淨土, 善惡 凡聖 등, 二見의 差別 分別心이 떨어지고, 청정한 본래의 自性 그 當處에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근기가 낮은 중생을 위해서는 멀리 있는 것이고, 근기가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가까이 있다고 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근기가 낮은 사람은 미혹한 중생으로, 근기가 높은 사람은 깨달아 지혜를 구족한 부처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육조단경」의 여러 곳에서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라고 설하고 있는 말은 이러한 입장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2) 마음이 청정하면 佛土가 청정하다.

돈황본 「육조단경」에서 혜능은 「인간에게 능력의 차이로서 상근기·하근기의 두 종류가 있으나, 가르침(法)에는 둘이 있을 수 없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에 더디고(遲) 빠름(疾)이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을 의지하여) 念佛로서 극락정토에 왕생하려고 하지만, 깨달은 (지혜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佛土가 청정하다.”라고. 지사여! 東方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마음이 깨끗하다면 죄가 없지만, 西方이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東方에나 西方이 있는 곳에 往生하기를 願하지만, 동방이나 서방이 모두 똑같다. 마음(心地)에 단지 不淨이 없으면, 西方은 여기서 멀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한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일단은 「유마경」 「불국품」의 다음과 같

은 설법이다.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자기의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곧 불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⁵⁴⁾

이 말은 『雜阿含經』 제10권에 「比丘, 心惱故 衆生惱, 心淨故 衆生淨」⁵⁵⁾와 내용이 비슷한 말인데, 『유마경』의 이 일절은 일찌기 『寶藏論』, 신수의 『觀心論』을 비롯하여, 혜능의 설법과, 慧海의 『돈오요문』,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 등에 많이 인용하고 있다.⁵⁶⁾

신수의 『관심론』에서는 「만약 自心이 청정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청정하다.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佛土를 청정히 하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히 해야한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불토가 청정하다. 만약 능히 三毒心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면 三聚淨戒는 자연히 성취된다.'라고 설한다.⁵⁷⁾

보조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에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淨名經』에 말하길, 불토를 청정히 하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불토도 청정하다. 『법보기단경』에 말하길, 心地에 다만 不淨이 없으면 서방은 여기서 멀리 않다. 성품에 不淨

54 若菩薩欲得淨土 當淨其心,隨其心淨,則佛土淨 (『大正藏』 14-538c)

55 『大正藏』 2-69c

56 『寶藏論』 (『大正藏』 45-145c)

『觀心論』 (『大正藏』 48-367c)

『金剛經義解』 (『慧能研究』 p.437)

『종경록』 97권 (『大正藏』 48-940a)

57 『관심론』 (『大正藏』 48-367c)

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어찌 부처님이 오셔서 맞이할 수가 있으랴!58)

지눌은 『육조단경』을 통해서 『유마경』 「불국품」의 구절을 인용하여 마음의 정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혜능의 설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金剛經解義』에도 보살의 佛土莊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장엄으로 구분하여 해설하고 있다.

청정한 佛土는 모양도 없고(無相) 형상도 없는데(無形) 무엇으로 능히 장엄할 수가 있는가?

오직 定慧의 보물로서 잠시 장엄 한다고 말한다. 事理장엄에는 세 가지가 있다.

第一, 세간의 불토를 장엄하는 것은 질을 짓고, 寫經하며 보시 공양하는 것이다.

第二, 見佛土를 장엄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사람을 보고 널리 공경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第三, 心佛土를 장엄하는 것은 마음이 청정하면 불토가 청정하니, 念念이 항상 佛心을 실행하는 것이다.59)

慧海의 『돈오요문』에는 이와 똑같은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어떤 법사가 질문했다. ‘念佛은 有相의 대승인데 선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사가 말했다. ‘모양이 없어도 대승이 아니거늘 하물며 모양이 있는 것이라! 경에 말씀하시길, “모양을 취하는 범부는 근기에 따라 설한다.”라고 하였다.’

또 질문했다. ‘淨土에 태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토가 있습니

58 『보조전서』 p.53

59 『혜능연구』 p.437

까?’

대사가 말했다. ‘경에 말씀하시길,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그 마음이 청정하면 佛土가 청정하다. 만약 마음이 청정하면 자신이 있는 곳마다 모두가 정토이니, 마치 왕의 집에 태어난 아들은 결정코 왕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과 같이, 마음을 일으켜 佛土를 향하면, 그는 청정한 佛國에 왕생한다. 만약 마음이 不淨하면 태어나는 곳마다 더러운 국토(穢土)이니, 더럽고 깨끗함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국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⁶⁰⁾

또, 『돈오요문』에는 『유마경』 「불국품」의 일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질문] ‘『유마경』에 말씀하시길,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청정히 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대답] ‘필경 청정으로 깨끗함(淨)을 삼는다.’

[질문] ‘어떤 것이 필경 청정으로 깨끗함을 삼는 것입니까?’

[대답] ‘깨끗함도 없고, 깨끗함이 없음도 없는 것이 바로 필경 깨끗함인 것이다.’

[질문] ‘어떤 것이 깨끗함도 없고, 깨끗함이 없음도 없는 것입니까?’

[대답] ‘일체처에 無心함이니 깨끗함이 깨끗함을 얻을 때에 깨끗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음이 곧 깨끗함이 없음이며, 깨끗함이 없음을 얻었을 때에 또한 깨끗함이 없다는 생각도 하지 않음이 곧 깨끗함이 없음도 없는 것이다.’⁶¹⁾

『돈오요문』에는 『유마경』의 이 일절을 수시로 인용하여 청정

60 『大正藏』 51-443c

61 一切處無心,得淨之時,不得作淨想,即名無淨也. 得無淨時,亦不得作無淨想,即時無無淨也 (禪의 語錄 6권, 平野宗淨, 『頓悟要門』, 日本:筑摩書店, 1967, p.107)

한 마음을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데,⁶²⁾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을 「畢竟淨」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하는 畢竟 淸淨이란,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아간 그 경지에도 머무르지 않는 입장을 말한다.

말하자면 반야바라밀의 실천으로 제시하고 있는空的 실천과 똑같은 「畢竟空」의 논리인 것이다. 본래의 空으로 되돌아간 그 空에도 집착하거나 머무름이 없는 무한의 空의 실천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대승불교에서는 空의 실천으로 中道를 설하고 있지만, 선불교에서는 마음을 淸淨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無心の 경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의 종교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⁶³⁾

돈황본 「육조단경」 16단에 一行三昧를 설하고 있는 일단에도 「유마경」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마음의 정토를 강조하고 있다.

一行三昧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시간의 行住坐臥에서 항상 直心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淨名經」에서도 “直心이 바로 道場이라고 하고, 直心이 바로 淨土라고”하였다. 마음으로는 거짓으로 아첨하고 뻔뻔해진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만 진실의 율바름만 설하지 말라. 입으로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直心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오직 直心으로 행동하여 일체의 모든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이 일단은 「전동록」 제5권 「혜능장」에 혜능의 설법으로 「若於一切處 行住坐臥, 純一直心, 不動道場, 眞成淨土, 名一行三昧」,⁶⁴⁾라고

62 維摩經云 欲得淨土 當淨其心,隨其心淨,即佛土淨 (『돈오요문』, 前掲書 p.7)

63 정성본, 「선불교와 중도사상」, 『한국불교학』 제31집, 2001

64 「大正藏」 51-236b

응용하고 있으며, 『종경록』 제97권 「혜능전」에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제육조 혜능 대사가 말했다. 그대들은 自心이 바로 부처이니 또다시 의심을 일으키지 말라. 마음 밖에서는 한 法도 능히 건립 할 수가 없다. 모두 自心이 만가지 여러 法을 일으키는 것이다. 경전에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이 일어난다.”라고 했다. 그 법은 둘이 아니며, 그 마음 또한 그러하다. 그 道는 청정하여 여러 모양이 없다. 그대들은 청정하고 공한 그 마음을 관찰하려고도 하지 말라. 이 마음은 둘이 아니고,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行住坐臥가 모두 하나의 直心이며 즉 이것이 淨土이다. 나의 말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정코 깨달음을 이루리라.⁶⁵⁾

이상의 인용에서 한결같이 언급하고 있는 「直心是淨土 直心是道場」이란 말은, 『유마경』 「불국품」과 「보살품」의 일절이다.⁶⁶⁾ 선에서 말하는 정토의 세계는 『유마경』의 이 일절을 토대로 하여 唯心淨土를 실천할 것을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3) 정토는 마음이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

65 『전등록』 제5권 「혜능장」

若於一切處行住坐臥,純一直心,不動道場,眞成淨土,名一行三昧。(『大正藏』 51-236b)
『종경록』 제97권 「혜능전」

第六祖 慧能大師云,汝等諸人 自心是佛,更莫狐疑,心外更無一法而能建立,皆是自心生萬種法,經云,心生種種法生,其法無二其心,亦然,其道清淨無有諸相,汝莫觀淨及空其心,此心無二無可取捨,行住坐臥,皆一直心,即是淨土,依吾語者 決定菩提。(『大正藏』 48-940a)

66 『유마경』 「불국품」

直心是菩薩淨土 (『大正藏』 14-538b~c)

『유마경』 「보살품」

直心是道場,無虛假故,發心是道場,能辦事故,深心是道場,增益功德故。

(『大正藏』 14-542c)

- 自性彌陀, 唯心淨土 -

돈황본 『육조단경』에 정토를 구현하는 혜능의 법문을 다음과 같이 싣고 있다.

大師께서 말씀하셨다. '大衆 여러분! 잘 듣도록 하라. 世上 사람들이 바로 色身은 城과 같고, 눈·귀·코·혀는 마치 城門과 같다. 밖으로는 눈, 귀, 코, 혀, 몸의 五門이 있고, 안으로는 意識의 門이 있다. 마음은 곧 바로 土地이요, 本性은 곧 바로 王과 같다. 本性이 있으면 王이 있고, 本性이 떠나가면 王은 없다. 本性이 있어야 몸과 마음이 있을 수 있으며, 本性이 떠나면 몸과 마음은 파괴된다. 부처는 自己의 本性이 부처가 되는 것이니, 몸밖을 向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자기의 本性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의 本性이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인 것이다. 자비가 바로 관음이요, 회사(喜捨)의 마음을 세지(勢至)라고 부른다. 스스로 청정한 것이 바로 석가요, 평상의 솔직한 마음이 미륵이다.

人相과 我相은 바로 須彌山이요, 邪心은 大海이고, 煩惱는 波浪이다. 毒心은 惡龍이고, 塵勞는 물고기와 자라(魚鼈)이다. 虛妄은 鬼神이고, 三毒의 마음은 곧 바로 地獄이며 愚痴는 다름 아닌 畜生이다.

十善은 바로 天堂이며, 人相과 我相이 없으면 須彌山도 저절로 무너지게 된다. 邪心이 제거되면 바닷물도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파도도 없어지며, 毒害가 없어지면 魚龍도 없어진다.

自心の 대지에 覺性の 여래가 대지혜의 광명을 놓아 비추니 六門이 청정하게 되고, 六欲의 諸天에 까지 비추고 있다. (自性)이 內照하여 三毒이 제거되면 지옥은 단번에 소멸되어, 안과 밖이 분명히 밝아져, 서방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修行을 닦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혜능은 몸과 마음으로 여기서 정토의 세계를 구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정토는 서방으

로 십만억 국토를 지나서 찾아가는 有相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이 我相과 人相이 없어지고 身·口·意 三業이 청정해진 그 모습이 다른 아닌 정토의 세계에 왕생한 것이라고 단적으로 설하고 있다.

즉 十善을 닦고 번뇌 망념의 邪心과 三毒이 없어진 그대로의 자기가 그대로 眼·耳·鼻·舌·身·意의 六門이 청정한 法身이 되어 대광명을 발하게 된다고 설한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반경』의 諸行無常偈로서 불교의 정신에서 접근해보자.

諸行無常 일체의 모든 것(존재법)은 무상한 것,
 是生滅法 이것은 모든 것이 나고 죽는 生滅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生滅滅已 生滅이 완전히 없어진 그 경지는
 寂滅爲樂 열반적정의 세계는 즐거움의 충만한 곳.⁶⁷⁾

이 개송은, 앞에서 인용한 『楞伽經』의 “妄心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이 일어나고, 妄心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법이 없어진다.(心生種種生, 心滅種種滅)”라는 일절과 같이 마음에 일어난 번뇌 망념이 없어진 경지가 열반 적정(寂滅)의 즐거운 깨달음의 세계라고 설하고 있는 말이다.⁶⁸⁾

67 『열반경』 (『大正藏』 12-204c, 450a, 451a)

『彌勒成佛經』 (『大正藏』 14-430b)

68 『楞伽經』 제9권 (『大正藏』 16-568c)

『대승기신론』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故 (『大正藏』 32-577b)

『首楞嚴經』 제1권

由心生故 種種法生, 由法生故 種種心生. (『大正藏』 19-107c)

여기서 말하는 「心生」은 무명에 반연되어 망심이 일어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그 無明이 滅하여 마음의 움직임(妄心)이 멈춘 것을 心滅이라고 한다. 다만 心滅이라고 해도 대승법의 중생심이 滅하여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 妄心の 움직임이 없어진 것을 滅이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그 滅의 참된 의미는 마음의 근원인 청정한 본래심으로 되돌아가는 것(心源還淨)을 말한다.

따라서 열반 적정의 즐거움도 일체의 번뇌 망심이 없어진 본래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선불교에서 말하는 정토의 세계란 자성이 청정한 근원적인 본래의 마음을 말한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자기의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 자기의 마음을 청정히 하면 불토가 청정하다.»라고 하였고, 또 「直心이 바로 보살의 정토」라고도 설하고 있는 것이다. 直心은 자성이 청정한 근원적인 본래심을 말하며, 번뇌의 망심이 없어진 그 본래의 청정심을 말한다.

돈황본 「육조단경」에서 身・口・意 三業이 淸淨한 경지가 바로 자기가 淨土의 아미타불 法身이 된 것이며, 자기의 眼・耳・鼻・舌・身・意의 六門(身心)에서 그대로 아미타불 법신의 대광명이 발하게 된다고 설한 것은, 懶翁和尚이 「모든 念佛人에게 내린 법문」에 다음과 같은 계송으로 대변하고 있다.

阿彌陀佛在何方 아미타불은 어디에 있는가?

着得心頭切莫忘 마음속에서 아미타불을 잊지 않도록 하라.

念到念窮無念處 妄念이 없어진 無念處의 경지에서,

六門常放紫金光 자기 法身の 여섯 창문으로 紫金色의 光明이 방출하리라.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淨土는 自性淸淨의 경지를 깨닫는 것이며,

自性の 아미타불을 깨닫는 것을 정토에 왕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토라는 어떤 공간적인 세계가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번뇌 망념을 여의고 청정한 본래의 自性으로 되돌아간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관무량수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阿彌陀佛 去此不遠」이라는 말은 자성의 彌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阿彌陀佛은 Amitayus (무한의 生命을 구족함) 와 Amitabha (무한의 光明을 구족함)는 「법화경」에서 주장하는 久遠實性の 法身佛과 법신불의 光明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미타불을 반드시 정토경전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入楞伽經」 제9권에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習氣法化佛,及作於化佛,是皆一切從 阿彌陀國出,應化所說法,及報佛說法,修多羅廣說,汝應知密意.⁶⁹⁾

또 40권본 「화엄경」 제40권 「入不可思議解脫境界普賢行品」에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唯此願王 不相捨離,於一切時 引導其前一剎那中,即得往生極樂世界,到已即見阿彌陀佛.⁷⁰⁾

즉 보현보살은 선재동자에게 아미타불을 칭송하고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을 권하면서, 구경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긴요한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가르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69 「大正藏」 16-568c

70 「大正藏」 10-846c

자신도 西方에 왕생하여, 이미 소원을 원만히 성취하였다고 하면서, 또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하고 있다.

願我臨欲命終時，盡除一切諸障礙，面見彼佛阿彌陀。即得往生安樂刹
 我既往生彼國已，現前成就此大願，一切圓滿盡無餘，利樂一切衆生界。
 彼佛衆會咸清淨，我時於勝蓮花生，親觀如來無量光，現前授我菩提記。
 ……(略)速見如來無量光，具此普賢最勝願。⁷¹⁾

보현보살이 자신의 수행을 고백하며 「願我臨欲命終時，盡除一切諸障礙，面見彼佛阿彌陀。即得往生安樂刹」라고 아미타불 報身の 경계를 설하면서 경전을 끝맺음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40권본 「화엄경」도 구경에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보현보살이 아미타불의 경지를 원만히 성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아닌 극락정토에 왕생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현보살이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으로 普賢行願이 원만히 성취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미타불은 「화엄경」에서 주장하는 노사나불과 똑같은 입장의 法身佛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노사나불과 아미타불은 똑같은一體로서 法身佛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⁷²⁾

따라서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自性の 彌陀는 自性の 法身佛을 체

71 『大正藏』 10-848a

72 中村薫, 『華嚴の淨土』 p.251

『대승기신론』 「修行信心分」

當知如來有勝方便，攝護信心。謂以專意念佛因緣，隨願得生他方佛土，常見於佛，永離惡道。如修多羅說，若人專念西方極樂世界 阿彌陀佛，所修善根迴向願求生彼世界，即得往生，常見佛故，終無有退。(『大正藏』 32-583a)

득하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선종의 일관된 주장이다.

宋代 看話禪의 대성자인 大慧宗杲(1089~1163)가 王日休가 지은 「淨土文」의 「妙喜老人跋」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龍舒의 王虛中 日休는 많은 서적을 博覽하는 여가에 불교에도 열심히 연구하여 미혹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마음 쏟은 사람이다. 진실로 火中の 蓮華처럼 보기 드문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신을 구제하기보다도 먼저 남을 구제하려는 것은 보살의 원력이다. 자신이 깨달은 뒤에 남을 깨닫게 하려고 함은 여래가 사바세계를 구제하는 일이다.” 나(묘희)는 虛中の 원력을 기뻐하면서 발문을 쓴다. 만약 自性의 阿彌陀佛을 보려고 한다면 먼저 唯心이 淨土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虛中이 淨土文을 쓴 것은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만다.⁷³⁾

庚辰(1160년) 8월 20일, 대혜의 나이 72살 때 지은 글이다. 대혜가 인용하고 있는 경전은 「首楞嚴經」 제6권의 일절 인데, 「自未得度先度他」라는 일절은 「무량외경」과 「열반경」 38권 동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보살도의 정신이다.⁷⁴⁾

대혜종고의 발문에서 「自性이 아미타불이요, 唯心이 淨土」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다. 나옹화상도 다음과 같이 自性彌陀를 읊고 있다.

73 龍舒王虛中日休, 博覽群書之余, 留心佛乘, 以利人爲己任. 眞火中蓮也. 佛言, 自未得度先度他人者. 菩薩發心, 自覺已圓能覺他者, 如來應世. 予嘉其志, 爲題其後. 若見自性之阿彌, 卽了唯心之淨土. 未能如是, 則虛中爲此文功不唐捐矣. (『大正藏』 47-283b)

74 「無量義經」 「十功德品」,

未能度彼者 起度彼心, 未能自度已能度彼 (『大正藏』 9-387b~c)

「열반경」 38권

自未得度先度他, 是故我禮初發心 (『大正藏』 12-590a)

「수능엄경」 6권 (『大正藏』 19-131c)

自性彌陀何處在, 자성의 아미타불 어디에 있는가?
 時時念念不須忘, 언제나 一念으로 念하여 잊지 말지니,
 驀然一日如忘憶, 갑자기 어느날 기억까지 잊으면,
 物物頭頭不覆藏. 일체처 모든 곳에 아미타불 출현하리.

임제의 유명한 설법인 「隨處作主 立處皆眞」의 경지를 생각나게 하는 계송이다. 아미타불을 念하는 마음이 자신이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며, 염불하는 자신과 염불의 대상인 아미타불까지도 완전히 잊어버린 無心の 경지가 될 때에, 삼라만상의 일체 모든 곳에 그대로 아미타불이 현전하게 된다는 노래이다.

나옹선사의 계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아미타불은 바로 자기의 法身인 것이다.

普照知訥(1158~1210)의 「권수정혜결사문」에는, 「육조단경」에서 주장하는 선불교의 정토관을 계송하여, 다음과 같이 선불교의 정토관을 논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밝고 고요한 自性 가운데 선정과 지혜의 功이 있어, 멀리 저 부처(아미타불)의 계달음 경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만 名號만 稱하고 緣容을 想念하여 왕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건주어, 優劣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智者대사는 임종시에 문인에게 '죽을 찰라에 불수래의 모양이 나타나도, 一念에 뉘우쳐 고치면 능히 왕생할 수 있거늘, 하물며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마음을 닦아 수행한 道力の 공덕이, 어찌 헛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淨名經」에도 “佛土를 청정히 하려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佛土도 청정하다.”라고 설명했다. 「법보기단경」에도 ‘心地에 不淨함이 없다면 西方은 여기서 멀지 않지만, 성품에 不淨한 마음을 일으키면, 어떤 부처가 와서 맞이하겠는가?’라고 하였다.

延壽선사도 ‘마음을 알면 바로 唯心淨土에 나고, 경계에 집착하면 다만

반연하는 바 그 경계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상 부처와 조사들이 말한 것과 같이, 정토에 나기를 구하는 뜻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 말한 것이 아니니, 자기 마음의 근원을 떠나 어디를 향해 정토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如來不思議境界經』에 “三世의 一切 諸佛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自心에 의존하는 것이다. 만약 보살로서 제불과 일체의 법이 모두 마음임을 분명히 깨달아 그 마음에 수순하는 힘(忍)을 얻으면, 初地에 들어가 몸을 버리고 妙喜의 세계에 나기도 하고, 혹은 극락의 깨끗한 佛土에 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⁷⁵⁾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이렇게 볼 때 念佛하면서 정토에 왕생을 구하지 않더라도 다만 唯心을 깨달아 그대로(隨順) 관찰하면 자연히 저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결정된 일이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⁷⁶⁾

지눌은 앞에서 인용한 『육조단경』의 설법을 토대로 『유마경』과 『여래부사의경계경』 등을 인용하여 唯心淨土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太古普愚선사도 『樂庵居士 念佛略要』에 유심정토를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아미타불」은 인도의 말이니 번역하면 「한량없는 수명의 부처(無量壽佛)」라는 말이다. 부처도 인도 말이니 번역하면 「깨달음(覺)」이란 말이다. 이것은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本性으로서 큰 靈覺이 있어 본래 生死가 없고, 古今에 뻗쳐서 신령하게 밝고 깨끗하고 묘하여 安樂에 자재로우니, 이것이 한량없는 부처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 마음을 밝힌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이 마음을 설명한 것을 佛敎라고 한다. 부처가 一大藏敎를 설한 것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본 성품을 각자 깨닫게 한 방편이었다.

75 『大方廣如來不思議境界經』 (『大正藏』 10-911c)

76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전서』 p.24 (『한국불교전서』 4-704c)

방편이 비록 많은 듯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면 唯心이 淨土요, 自性이 彌陀인 것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佛土가 청정하고, 본 성품이 나타나면 부처의 몸이 나타난다」함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아미타불의 淨妙한 法身은 一切 중생의 心地에 두루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엄경」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였다. 또 말씀하시길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니, 마음 밖에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마음이 없다」고 했다.

相公께서 진실로 念佛하려면, 다만 자기 본래의 성품이 아미타불인 줄 念하여, 하루 종일 일체의 모든 행위에서 阿彌陀佛 名字를 내 마음 속과 눈 앞에 두고서, 마음과 눈과 부처님 名號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마음이 한결같이 이어지고, 念念이 蒙昧하지 않도록 하오. 그리고 때때로 이 생각하는 이 높이 누구인가를 은밀히 돌이켜 보도록 하시오.

이렇게 오래 오래 하여 성공하면, 어느 사이에 마음에 妄念이 단절되고 아미타불의 眞體(법신)가 또렷이 現前할 것이요. 진실로 이러한 때에 비로소 「옛부터 動하지 않는 것이 부처이다」라는 말을 믿게 될 것이요.

『태고어록』 「示白忠居士」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念佛수행의 법문을 내리고 있는데, 보우국사 역시 보조지눌과 같이 「唯心淨土, 自性彌陀」의 정토수행을 지시하고 있다.

서산대사의 「禪家龜鑑」 53단에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五祖는 ‘자기의 眞心을 지키는 것이 시방의 諸佛을 念하는 것보다도 뛰어난 수행이다’라고 말했다. 六祖는 항상 다른 부처를 念하면 生死 윤회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자기의 本心을 지키면 피안에 이르리라.’고 하고, 또 ‘부처는 자기 불성에서 이루는 것이지 자기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念佛하여 왕생을 구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고, 또 ‘대저 중생이 마음을 깨달아 스스로 자기를 제도

하는 것이지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했다.⁷⁷⁾

서산대사는 弘忍의 『守心要論(최상승론)』과 『육조단경』에서 眞心, 혹은 自性을 깨닫는 것이 스스로 부처를 이루는 것이요, 생사 윤회를 해탈하는 길이며, 자기를 구제하는 올바른 법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대덕이 本心을 곧바로 가리킨 것이지 다른 방편이 없으니, 이치로는 진실로 이와 같다. 그러나 迹門에서는 실로 극락세계에 아미타불이 48大願이 있으니, 누구나 열번(十聲) 염불하는 사람은 이 원력의 힘을 받아서, 연화의 탕속에 왕생하여, 곧바로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삼세의 재물이, 모두 한결같이 말했고, 시방의 보살들도 한결같이 왕생을 원하고 있다. 하물며 고금에 왕생한 사람들의 전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니 바라건대 수행자들은 誤認하지 말고 힘쓸지어다.

梵語의 阿彌陀는 無量壽이며, 역시 無量光이란 뜻이니 시방삼세에 첫째가는 부처님의 名號이다.

수행시의 이름은 法藏比丘이니 世自在王 부처님 앞에서 48원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성불할 때 시방의 무수한 세계 모든 하늘과 인간으로부터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나의 이름을 열 번만 부르면, 반드시 나의 나라에 왕생하게 하소서. 이 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옛 성인이 말씀하시길 '염불하는 一聲에 天魔들은 가슴이 서늘해지고, 그 이름이 저승의 名簿에서 지워져 연꽃이 금못에서 나온다.' 하고, 또 懺法에 말하기를, '自力과 他力, 하나는 더디고 하나는 빠르니,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이 나무를 심어 배를 만들려면 더딜 것이다. 그것은 自力에 비유

77 五祖云,守本眞心,勝念十方諸佛.六祖云,常念他佛,不免生死,守我本心,即到彼岸.

又云,佛向性中作,莫向身外求.又云,迷人念佛求生,悟人自淨其心.又云,大抵衆生,悟心自度,佛不能度衆生.

한 것이요, 남의 배를 빌려 바다를 건넌다면 빠를 것이니, 그것은 부처님의 힘(佛力)에 비유한 것이다.' 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어린애가 물이나 불의 위험에 쫓기어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면, 부모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와 구원하는 것같이, 만일 사람들이 臨終할 때에 高聲念佛하면 부처님은 신통을 구족했기 때문에 결정코 와서 맞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자비는 부모보다 더 깊고, 중생의 生死는 물과 불보다도 더 심하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 '自心이 정토인데, 다시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랄 것이 없으며, 自性이 아미타불인데, 달리 아미타불을 보려고 애쓸 것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이 말이 옳은 듯 하면서도 잘못된 것이다. 저 부처님은 탐내거나 성내는 일이 없으니, 나도 그와 같이 탐내거나 성내지 않는가? 저 부처님은 지옥을 바꾸어 연꽃세계로 만들기를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하는데, 나는 죄업으로 항상 지옥에 떨어질까 겁만 내거든, 하물며 그 지옥을 바꾸어 연화세계가 되도록 할 수 있는가?

저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계를 눈앞에서 보시는 듯 하는데, 우리는 담장 밖에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시방세계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사람마다 성품은 비록 부처이지만, 실제 행동은 중생이므로, 그 이치와 현실을 말한다면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진 것이다. 규봉선사가 말하길, '가령 頓悟하였더라도 반드시 점차로 닦아가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그러면 「自性彌陀」에 대하여 말해보자.

어찌 天生의 釋迦와 自然의 彌陀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스스로 자신을 헤아려 보라!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리요. 임종을 당하여 숨이 끊어지는 生死의 고통에 반드시 자재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와 같이 안 된다면, 一時의 교만심으로 도리어 영원히 惡道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馬鳴보살이나 용수보살이 모두 조사이지만 분명히 왕생하는 길을 간절히 권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왕생의 길을 닦지 않을 것인가?

또 부처님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다. 십만(十惡) 팔천(八邪) 국토를 지나야 한다.' 고 한 것은, 우둔한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만을 말씀하신 것이

다. 또 '서방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다. 이 마음(중생)이 바로 부처(아미타불)이다.'라고 하신 것은 총명한 사람을 위해서 本性을 말한 것이다.

가르침에는 權敎와 實敎가 있고, 말씀에는 드러냄(顯)과 비밀(密)이 있으니, 만약 아는 것과 行하는 것이 서로 일체된 사람은, 멀거나 가깝거나 두루 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의 문하에도 阿彌陀佛의 명호를 稱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主人公을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서산대사는 염불수행의 정토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불법의 他力에 의지하여 왕생하는 정토경전의 정신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편, 중생의 근기와 利鈍에 따라서 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선불교에서 「唯心淨土 自性彌陀」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오류의 사고를 비판하는 한편, 수행과 자각적인 입장에서 잘 살피 공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석가와 미타는 둘이 아닌 것이며,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한 부처님의 名號일 뿐이며, 서방이 여기서 멀고, 가깝다고 설한 것도 방편의 설법인 것인데, 이러한 불법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서는 생사를 해탈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법의 가르침에 방편과 진실이 있고, 顯密이 있는 것인데, 불법의 진실(玄旨)과 올바른 실천이 相應한 수행을 해야, 아미타불을 念하거나, 主人公을 부르면서 자각하는 참선수행을 하거나, 모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한가지 길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불법의 근본 정신인 玄旨를 깨닫고 진실을 알아야 올바른 수행자가 될 수 있고,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것임을 주의하고 있다.

특히 서산대사가 여기서 규봉 종밀의 「頓悟漸修」설을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頓悟의 편견에 떨어져 나쁜 버릇의 짝

氣를 제거하고 人格형성을 이루는 점수적인 수행은 물론, 念念自覺의 자기 향상을 게을리 하는 수행자들을 위한 경책적인 법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5. 맺는 말

이상 선불교의 입장에서 염불수행과 淨土에 대하여 몇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선불교의 정토관은 「唯心淨土 自性彌陀」의 입장에서 염불수행과 정토왕생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찌기 道信이 「관무량수경」에서 주장하는 「是心是佛」을 一行三昧의 선수행을 제시하여 각자 스스로 부처를 이루는 깨달음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돈황본 「육조단경」에서는 「유마경」, 「불국품」의 若菩薩 欲得淨土 當淨其心, 隨其心淨 則佛土淨란 일절을 인용하여 心地法門으로 전개하면서 선불교의 사상적인 기반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능가경」과 「기신론」에 「妄心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법이 일어나고, 妄心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법이 없어진다(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라는 일절에 의거하여 無念의 실천사상을 확립하여 心法の 불법을 정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문헌에서 「自心是佛 心外無佛」이나, 혹은 「돈오요문」에서 「心外求佛 名爲外道」라는 주장은, 佛法이 心法인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혹한 중생심을 전환하여 깨달음의 佛心으로 만드는 頓悟見性說이 수행토대로 정확하게 되는 것이다.⁷⁸⁾

78 「돈오요문」(「大正藏」 51-441c)

「전심법요」

정토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것처럼, 서방 십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있다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과연 有相의 국토일까?

범부의 중생심이 此土의 사바세계라면, 성스러운 불성을 깨달은 佛心이 다른 아닌 열반의 경지인 彼土라는 極樂淨土이다. 따라서 此土와 淨土의 거리는 수치상의 거리가 아니라, 중생심의 미혹으로 계산하는 번뇌 망념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관무량수경』에서 「阿彌陀佛 去此不遠」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조단경」 등에서도 「自性彌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불교는, 「箭喻經」에서 독화살을 맞은 사람의 비유로 설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의 종교이며, 임제의 설법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자기를 깨달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생활종교인 것이다. 말하자면 사막에서 발생한 유태교나 기독교처럼 來世의 종교가 아닌 것이다.

또한 絕對他者인 神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生死妄念을 자각하여 무명의 업장을 벗어나 自力의 지혜로 자기 스스로를 濟度하는 자각의 종교인 것이다.

또한 불교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불교는, 우빠니샤드에서 주장하는 윤회의 실체인 靈魂(Ātman)의 존재를 부정하는 無我說인 것이다. 육체가 죽은 뒤에 영혼의 윤회나, 영혼의 왕생이란 불교 사상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비불교적인 주장인 것이다. 우선 육체와 영혼의 존재를 분리하는 二元的인 사고는 차별 분별심에 떨어진 斷見 常見이다.

따라서 정토종에서 주장하는 염불수행과 阿彌陀佛을 친견하는 주

장이나,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주장은 현실적인 종교인 불교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자기 본성을 깨닫는 자각종교의 차원에서 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唯心淨土, 自性彌陀」는 불교 사상을 정통적으로 계승한 정법의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선불교에서 佛祖의 正法眼藏과 佛慧命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의미는 이러한 정법의 상승을 자임하는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